

## 광주 '車 100만대 도시' 친환경차가 이끈다

### 부품산업 집적화 40만대 생산기지 구축 전국 첫 정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유치

광주시가 40만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실현에 나선다. 시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생산기지를 확대해 100만대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관련기사 3면>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1조3337억원을 투입, 친환경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160억원)와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4899억원),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유망 기술개발(2619억원), 완성차

연계 테마파크(5700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의 집적화로 40만대 이상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 구축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클린디젤 30만대, 하이브리드 5만대, 전기 2만대, 수소연료전지 1만대 등이다.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는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 이전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 66만㎡, 완성차 및 부품업체 클러스터 142만㎡, 인프라 62만7000㎡, 테마파크 26만4000㎡ 등 297만㎡(9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친환경 완성차 생산라인과 연계해 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인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를 모델로 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시장과 박물관, 새차보관장, 새차출고장, 브랜드별 전시장, 운전체험관, 어린이 교통문화관 등을 건립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시는 또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유치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자동차 100만대 생산시설 구축에 주력하는 것은 광주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의 총 수출액 141억달러 중 자동차가 49억8000만달러를 차지했으며, 연간 매출액도 8조원 규모로 지역 총생산의 30%를 웃돌 정도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100만대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자동차 관련 매출액이 현재보다 2배 많은 16조원대로 급상승하고, 2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도 생긴다. 여기에 240여개의 수도권 협력업체의 이전이 예상되며, 엔진 관련 제작 산업이 광주로 옮겨오게 된다. 실제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간 60만대에서 62만대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현대모비스 등 굵직한 협력업체들이 광주로 옮겨왔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유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타지역 자동차 공장보다 안정된 노사관계, 자동차 산업 연구 인프라 구축, 목포 신의항을 통한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근로

자 1명당 생산대수는 전국 기아차 공장 중 1위이며, 자동차 전용부두인 목포 신의항 공사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연구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광주의 장점이다.

광주에는 한국광기술원과 과학기술원,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차세대전장부품 자동차센터, 하이테크 금형센터, 디자인 센터 등 수많은 연구 및 지원기관이 들어서 있다. 또 광주·전남은 자동차 계열 고교와 전문대학이 20개교에 이를 정도로 생산인력배출 시스템도 안정적이다. 광주시 순경종 전략산업 과정은 "연간 4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그 옆 부지에 현 광전동 기아차 광주공장이 옮겨와 자동차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꽃구경 즐거운 동심      합평 나비축제 개막식(4월26일)을 한 달여 앞둔 20일 오후 합평군 합평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합평 대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신기한 듯 나비를 관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방송·금융사 전산마비 해킹 악성코드 유포 수사

20일 오후 2시경부터 KBS·MBC·YTN과 신한·농협·제주은행 등 3개 은행, NH생명보험·NH 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 전산망에서 동시다발로 장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해킹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로 벌어졌음을 확인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사이버테러로 보고 피해를 본 기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 3사에서는 이날 갑자기 사내 PC가 다운된 뒤 재부팅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회사 내부망을 이용한 기사 작성 등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신한은행에서는 영업점 창구 업무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중단됐다. 농협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제주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CD·ATM이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가정보통신망에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연계망은 내부망, 인터넷망 모두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사태가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 작년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처럼 북한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11일 시작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이날 일부 금융사의 전산망 마비로 광주에서도 은행 고객들의 불만이 빚발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농협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3시경 농협 중앙본부의 연락을 받고 1시간 동안 ATM 등 시스템을 중단한 뒤 오후 5시가 돼서야 정상가동했다.

농협 중앙본부는 금융 단말기와 자동화기기의 랜(LAN)을 즉시 뽑고 전원을 끄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본부에 공지했다.

농협 전남본부 광양지점도 직원 개인 PC의 랜선을 분리하도록 조치한 뒤 약 3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했다. 광양지점은 이날 전산망 마비로 은행

## 해킹 악성코드 유포 수사 광주 금융장구 곳곳 혼란

업무를 보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신한은행 광주 법인지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전산망이 완전히 끊겨 업무가 마비됐다. 은행 직원들은 "일시적 전산장애"라는 안내문을 은행 곳곳에 붙이고 고객들을 돌려보냈다.

방송사 관계자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KBS 광주방송총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으며 외부에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로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었지만 자체 보도정보 프로그램 등은 이용할 수 없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 ~ 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정원박람회 안전성 검증없는 무인케도차 '위험'

30일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의 관람객 운송 수단 중 하나인 무인케도차(PRT)가 적절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박람회 기간 동안 운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산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검증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자체 검사 등을 통해 개막일에 맞춰 이 케도차를 임시 운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20일 "무인케도차 도입과 설치에 애초 계획보다 늦어져 개막일인 4월 20일에 맞춰 우선 검사를 끝낸 20여대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케도차는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잇는 4.6km 구간에 높이 2.5~4.5m 케도를 놓고, 4~6인승 소형 케도차가 왕복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스웨덴 등지에서 수입, 국내에서 조립하는데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 후 매일 5대씩 추가 투입해 박람

회가 끝나기 2개월 전인 8월께에는 40대를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임을 받는 정상 운행 전, 설계 과정에서 수정·보안된 부분과 최종 안전성 여부를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임시 운행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됐다.

사람을 태운 시운전은 통상적인 행위지만, 하루 최대 8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박람회 기간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운전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철도심사팀 김관호 검사관은 "케도운송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설치 업체가 외부 기관을 통해 충분히 검사를 한 뒤 임시 운행할 예정이며, 보험가입 등 탑승객 안전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본문화예술매거진 4월호

반갑다! 예향

우린 이런 예향을 원한다

문화예술계 인사 20명이 보내는 메시지

커버스토리 1 <해외현지취재>

불붙은 아시아 문화전쟁

2015년 홍콩, 싱가포르, 광주 최종 승자는?

12만평, 3조원 들인 메가 프로젝트, 홍콩 서구풍 문화지구 이름만 빼고 도시 전체를 활 바꿔라, 싱가포르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관광·교통·쇼핑 인프라 열세, 광주의 운명은?

커버스토리2 <북간 특별기획>

반갑다! 예향

우린 이런 예향을 원한다

문화예술계 인사 20명이 보내는 메시지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광주에 등지 뜬 까닭은?

소설가 성석제 '백경'에 사로잡혔던 청년, 종년 즈음에 뚜렷해지는 '연암' 유전자

강운 하늘, 공기, 물을 타고 달리는 사유의 붓질

세계미술관기행 일본 나오시마 지쿠미술관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이창준 문학지도 굵이굵이 펼쳐진 장흥땅

문화역사기행 다산초당 유배의 시간이 오거든 다산을 만나라

아시아 스토리 로드 신만클리나 많은 이야기들의 나라 인도

신안아트아일랜드 천사의 섬, 예술의 날개 퍼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제15회 합평나비축제 제15회 장성홍길동축제 2013 영암왕인문화축제